

2023 충청남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본 주거정책 방향

최정현 초빙책임연구원, 임준홍 선임연구위원

*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정책과제
"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(2023~2032)"을
요약 정리한 것임.

충남연구원
Chungnam Institute

최근 부동산 정책 및 이슈

중앙정부 주택 · 주거정책 방향

-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전국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
-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등록임대주택 확충 -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 발표
- 생애최초주택 구입가구 대출규제 완화(LTV 60~70% → 80%)

충청남도 주택 · 주거정책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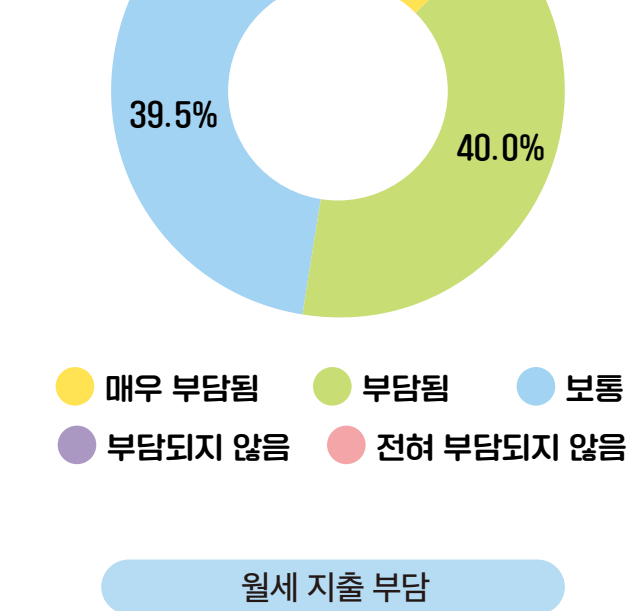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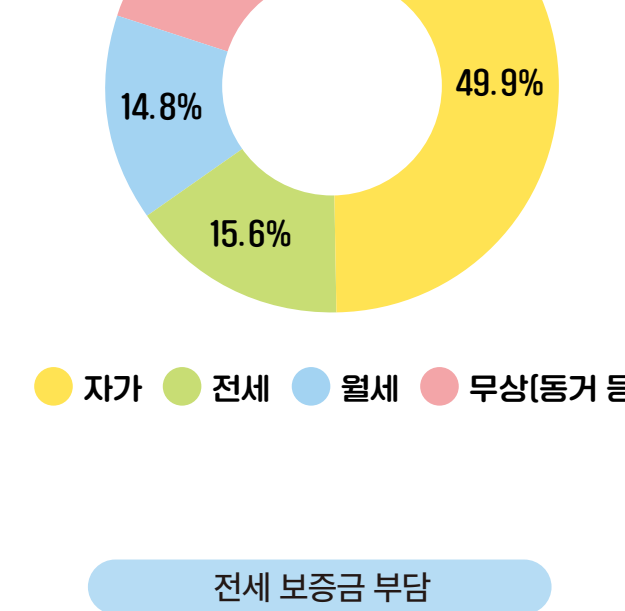
- 충청남도는 리브트게더 정책을 통해 청년, 신혼부부, 노년층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정착 지원
- 리브트게더 정책은 도시형, 농촌형, 어촌형 등으로 구분되며, 지역별 여건 따라 공급규모 및 방식이 상이. 주거정착 디딤돌 역할을 위해 분양방식과 임대방식을 혼용하여 추진

분석결과

본 조사는 충청남도 주거종합계획(2023~2032)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15개 시·군 1,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3~4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주택 및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01 충남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

- 충남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평균은 **3.21**
- 권역별 분석결과 북부권이 **3.31**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금강권, 서해안권은 각각 **3.15**, **3.16**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



주 :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로 조사함(매우불만 1점, 불만 2점, 보통 3점, 만족 4점, 매우만족 5점)

02 주택 소유형태 및 형태별 주거비용 부담

- 응답자의 49.9%가 자가주택 보유, 30.4%는 전월세 거주자로 조사됨
- 자가주택 소유자의 52.8%는 주택매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 전세 거주자의 68.6%는 전세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, 월세 거주자의 56.8%는 월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
- 전월세 거주 응답자의 34.0%가 주거 안정성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

